

지식강국 건설의 기초는 지식 콘텐츠 구축

글 / 오해석 경원대 부총장



정보화시대, 정보통신시대, IT시대로 불리어진 21세기는 디지털시대로 대충 교통정리되는 느낌이다. 디지털시대가 출범했던 20세기 말만해도 IT장비, IT기술, 그리고 활용 면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디지털시대가 정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주안점은 콘텐츠다.

이제 '디지털콘텐츠시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디지털콘텐츠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가치가 상승일로에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주종은 역시 게임을 선두로 하는 엔터테인먼트류와 교육교재다. 근년의 추세로 보면 문화콘텐츠의 비중과 활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보화사회 넘어서 지식기반사회로 전이

지금까지는 정보에 초점을 맞춰 정보화사회를 대응해 온 게 사실이다. 정보라는 개념은 유익한 사실들을 문자로 설명하는 형태라고 대다수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정보의 형태가 멀티미디어로 확대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단순 멀티미디어시대를 뛰어넘어 지식시대로 가고 있다. 영화, 게임, 오락, 교육, 모바일폰, 인터넷 등에서 콘텐츠는 전성기를 맞고 있다. 정보가 주인이 되는 정보시대를 넘어 콘텐츠시대로 진입했고, 콘텐츠의 본격적 개발보급에 따라 다시 정보보다 한 차원 높은 지식시대의 개막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완전한 지식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준비해야 하겠다. 선진국들은 이미 21세기를 지식정보사회로 선언, 지식이 국가·사회 모든 분야 발전을 견인하는 으뜸요소라고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정보화사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역력을 모아 이제 지식사회로의 진입을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실제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투입요소들의 상대적 비중을 보면, 노동은 10~18%, 자본은 18~20%에 불과한 반면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2%로 자본과 노동력의 투입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물질과 양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에서 지식과 질 중심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신성장론에 입각한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친 결과 고도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앞으로 전개될 21세기 신경제체계 하에서는 지식정보기반의 경제시스템 구축이 가속화되고 모든 경제적 관점이 자본 위주에서 지식 위주로 변모되는 지식기반경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의 원료이기는 하지만 정보의 홍수는 역

기능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고 정말 필요한 것은 정보기반의 창조적 지식이다. 그래서 노나가 교수는 형식지(Explicit Knowledge)의 활용시대에서 암묵지(Tacit Knowledge)를 창조적 지식으로 활성화시켜야 함을 역설했다.

이제 정보시대에서 지식시대로 이행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 하드웨어적 정보시스템과 표준화된 정보기술은 목적 자체가 아니라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정보보다는 지식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필수품은 '지식 콘텐츠'

삼성그룹의 새해 사장단 회의에서 항상 거론되는 화두는 '10년뒤 먹거리' 라고 한다. 모든 계열사 임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골몰하면서 과제를 도출하는 회의장면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욱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제부터의 모든 경쟁력의 원천은 지식이다. 예로부터 '아는 것이 힘' 이라 했고, '문(文)은 무(武)보다 강하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지식의 힘은 이미 옛날부터 간파된 것임은 분명하다.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이제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최상위 목표는 지식국가 건설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선진행정 구현' 이라는 전자정부의 비전은 '정부의 경쟁력 제고' 라는 지식정부의 비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지식기반정부란 국가사회 시스템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국민을 만족시키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지식이 창출·활용될 수 있는 정부형태다.

과거 전자정부가 대민서비스 향상, 행정 효율성 제고, 행정 민주성의 향상 등에 목표를 두고 추진됐다면, 지식정부는 전자정부에서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서비스 생산성의 향상, 주체별 지식활동의 강화, 정부정책의 질적 제고를 목표로 국가 CKO(최고지식경영자)와 싱크탱크(Think Tank)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식국가는 지식기반의 정부, 지식화된 산업, 지식경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기업, 창조적 지식인으로 거듭난 국민, 이렇게 4대 부문의 지식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유기적으로 상호 촉진되어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강력한 리더십 등을 토대로 정부운영을 지식화하고, 주체별 지식활동을 강화하며, 정부정책의 질을 제고하는 등의 전략으로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민을 만족시키는 지식기반정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지식국가에서의 산업은 ▲기술개발과 선진제품의 국산화 등을 통해 창출, 축적된 지식을 공유·활용함으로써 산업을 지식화하고 ▲이를 토대로 6T산업, 디자인, 교육, 컨설팅, 의료, 영상, 오락 등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달성된 '산업전반의 지식화' 라는 모습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각 기업은 축적된 지식자산을 토대로 제품 리더십, 경영 탁월성, 고객관리를 지능화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지식국가의 국민은 호기심, 인센티브, 사명감,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통찰력, 전문지식, 네트워킹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지식창조능력을 확보하여 경쟁력우위의 창조적 지식인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지식국가 구현을 위해서는 ▲지식국가의 명확한 정의 ▲선진사례의 복제가 아닌 한국형 지식국가 모델 수립 ▲지식국가 구현을 위한 추진 주체 조직 ▲지식정보의 자원화, 지식공유 및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제정 ▲신지식인 제도 명문화 및 1만명 신지식인 양성 ▲국가 지식포털 구축 ▲지식사회로의 조기이행을 위한 문화운동 전개 ▲창의력 배양 위주의 교육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식기반정부, 지식인 국민, 지식화된 산업, 그리고 지식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구성되는 지식 국가는 곧 G7을 추월하는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를 구성하는 4대 요소들이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공통 필수품은 '지식 콘텐츠' 가 될 것이다. 